

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합작법무법인이나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 설립의 효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은 받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입 회계 내역의 명세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의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10.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 ④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11.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③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12.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의를 계속할 수 없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 ②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 ③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14.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변호사 징계대상이 아니다.

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ㄷ.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이다.

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15.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 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 하였다.

-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회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2과목 : 임의 구분

21.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개업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내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학교법인의 상근미사로 취임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ㄷ. 개업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등기미사로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불허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22. 변호사 광고로 허용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거에 자신이 취급했던 형사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
- ㄴ. 버스 내부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개인 회생·파산업무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 ㄷ. 변호사가 고교 동창인 현직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ㄹ. 변호사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23.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며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 ③ ㄱ, ㄷ ④ ㄴ, ㄷ

24.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윤리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 ② 전문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 ③ 특별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④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 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25.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 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 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 ③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 ④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26. 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 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ㄱ. B가 甲에게 현재 진행 중인 C와의 미혼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하며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미에 동의하면 甲은 B로부터 위 미혼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B가 이 사건에서 A를 상대로 X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甲에게 자신을 대리하며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미에 동의하더라도 甲은 B로부터 위 반소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B가 A를 상대로 X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하면서 甲에게 자신을 대리하며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미에 동의하면 甲은 B로부터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33.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34.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②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증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 ④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35.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 ③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3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 L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법무법인 L은 B회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ㄷ. 만일 변호사 甲이 A회사에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의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B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37.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②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③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받아야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
- ④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39.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①	②	①	④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①	④	①	③	③	③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①	④	③	①	②	②	①	②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③	④	④	①	③	②	①	②	④